

# 자기소개서

소 속	○○○○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	-------

## □ 교단에 서기까지

무학의 한을 자녀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으시려는 부모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부모님께서 늘 존경하시고 무한 신뢰를 하셨던 스승에 대한 동경심을 알기에 언젠가는 나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오로지 교사의 꿈을 꾸며 준비했던 임용고시에 불합격하고 나서 더 이상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 단념하고 대입 기숙학원의 사감으로 생활지도를 하며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숙학원에서 재수생들을 지도하며 근무하는 것도 적성에 맞았기에 평생의 직장으로 다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숙학원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교사에 대한 꿈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을 다 해보고 얻을지라도 제자를 만드는 스승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아내는 ○○○○ ○○로 재직하며 부모님과 함께 교사로서의 가능성과 능력에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며 적극적인 권유와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결여로 잠시 접어두었던 교직의 꿈을 3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 □ 교직에 입문하여 교감이 되기까지

### 1. ○○○○고등학교 (1996.7.5.~2002.28.)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7월 5일자로 ○○과 ○○ 중에 임지 희망 지역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 ○○인 ○○ 지역을 희망하였고 ○○학교인 ○○○○고등학교에 신입교사로 발령을 받아 교단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 가. ○○○○과 담임 2년

○○○○과 담임을 기피하던 학교 분위기에서 신규교사가 담임을 희망하니 학교 입장에서는 가문의 단비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과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힘들었던 시기였으나, 3년여의 기숙학원에서의 생활지도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마음을 먼저 살피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가정의 아픔이 특히 많았던 ○○○○과 학생들과 함께 하며 교사로서의 큰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나. ○○과 담임 3년, ○○부장 3년

○○○○과 담임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셨는지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2학년 ○○과 담임과 ○○부장을 맡기셨고, 그 학생들과 함께 교직 4년 차에 ○○○고 3학년 ○○과 담임과 ○○부장을 겸임하며 좋은 진학률로 졸업을 시킬 수 있었으며, 다음 해에도 3학년 ○○과 담임과 ○○부장을 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 ○○고등학교(2002.3.1.~2009.2.28.)

○○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미 있는 제안을 계기로 ○○고등학교로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였지만, 교직을 시작하면서부터 후학 양성을 위한 길이라면 교사라는 꿈을 품게 해준 ○○에서 제자이자 후배들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 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에서의 교사

○○에서 교사로서의 생활은 ○○○고에서 교직 생활과는 또 다른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선·후배와 친구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교사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저에 대해, 자녀에게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내거나 불편한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하여 부모 자신을 선생님보다 나은 사람으로 미화시키는 사례가 가끔씩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도 받았고 일일이 대응하며 사실 유무를 가리고도 싶었으나, 자녀들에게 선생님보다 더 좋고 훌륭한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었으리라 생각하며, 그럴 때마다 훌륭하신 부모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학생과 부모님을 높여 주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대응하니 같은 학부모에게 같은 일을 반복하여 겪은 경우는 없었고, 학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관계를 맺는 측면에서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의 운동부는 ○○○○○부, ○○○부, ○○부, ○○ ○○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많은 담임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 지도를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여 신입생부터 4개 운동부를 한 반으로 통합하여 학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학급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나. ○○부장, 학생부장 3년 6개월

운동부가 많은 학교의 특성상 선생님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쉽지 않았기에 ○○부장으로서는 ○○○ ○○를 ○○하면서 운동부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학생 지도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생활하는 ○○부 학생들과 ○○○ 부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학생들의 기숙사에 주기적으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더불어 선생님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 학생부장을 맡으면서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과 인성 지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외생활지도를 협력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업소 계도를 통해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부를 지도하며 ○○○○○○대회에서 금1, 은3, 동5를 획득하였고, ○○○○○○○○○(○○○○)를 지도하며 ○○○○대회에서 금1, 은1을 획득하여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실업팀 입단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3. ○○중학교(2009.3.1.~2015.2.28.)

○○고등학교에서의 7년을 뒤로하고 또 하나의 ○○인 ○○중학교에 부임하여 첫 해에 학생부장을 하며 중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정착과 인성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인근 고등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여 갔습니다. 교육경력 13년이 되자, 주요 부장직을 맡게 되면서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가. 학생부장 2년

기숙학원을 시작으로 교직에서 가장 많이 맡았던 업무는 학생 생활지도였습니다. ○○중학교에서의 학생부장 2년은 현재까지 제 교직 생활에서 생활지도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하기만 했던 그래서 약간은 서툴렀던 생활지도에서 많은 시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있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여전히 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학교폭력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였기에, 가·피해학생 모두 아파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피해학생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

으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과 중에 대안교실을 운영하며 ○○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가해학생들의 낙인효과를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교육부 「○○○○○ ○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어 해외선진국가 ○○○○○○ 교육프로그램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져 생활지도 측면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 나. 교무부장 4년, 교육협력부장 1년

교무기획부장으로 학교의 전체적인 업무를 거시적으로 구상하던 중에 2014년 국가정책이었던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기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지원단으로서 ○○지역 중학교와 ○○지역 중학교를 순회하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 중학교 특성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연수와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과 취약계층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학교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교육부 공모사업이었던 『○○○ ○○○ 우수중학교』에 공모하여 3년간 약 1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꿈과 끼를 찾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내세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인근 군부대에서 사범대 출신 군인 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마을 공부방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교사간의 일대일 멘토링시스템을 정착 시키어 학력 향상이라는 목적 이전에,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고, 래포가 형성된 이후에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육협력부장으로 교사로서의 마지막 1년을 『○○○ ○○○ 우수중학교』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에서도 행복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씨앗을 뿌리며 교사로서 뜻깊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 4. ○○중학교 교감(2016.3.1.~2018.2.28.)

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을 떠날 생각은 해보지 않았으나 모든 직위에서의 초임 발령은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에는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기에 ○○○ 소재의 ○○중학교에서 교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곳에서의 근무였으나 인간으로서 저를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많은 덕목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교사가 아닌 교감으로서 다양한 선생님들과의 학교생활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감으로서 학생·학부모와 SNS를 통해 소통하며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운영 및 지원하였으며, 교육복지사업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획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 중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5. ○○고등학교 교감(2018.3.1.~2020.8.31)

교감으로서 첫 학교였던 ○○중학교에서의 2년을 보내고 ○○인 ○○고등학교로 돌아와 교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교감으로서 ○○에 돌아온 것 자체가 제 자신에게는 또 다른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지역에서 바라보는 학교의 모습과 교직원들이 바라보는 학교와의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두가 교육공동체이기에 상호 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아침 등교 맞이를 매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마주하고 대화하며 학교에서의 처음을 웃음의 인사로 시작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교육청지원단 활동을 통해 ○○고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시키고자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고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며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학교에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 1. 왜 일동중학교인가?

교단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평생 교직에서 후학을 양성할 것이면 ○○ ○○, ○○ ○○에서 내 최선의 노력으로 ○○○○ ○○인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부담되는 공모교장을 왜 하려는냐?”며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동중학교이기에 ○○ ○○이기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일동중학교를 떠날지라도 늘 가슴 한 켠에 남아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학교가 일동중학교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2. 교장으로서의 역할

### 가. 낮은 자세로 배우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를 그리고 교육공동체를 ○○○○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자로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방향성과 비전을 함께 설정하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들려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학교경영을 할 때, 비로소 함께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있기에 아침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경력교사가 많지 않은 일동중학교의 교사 구성만을 원인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뛰어난 목수는 버릴 나무가 없고, 뛰어난 리더는 버릴 인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경력 교사의 열정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경력교사의 경험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일동중학교의 교육적 실천에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나. 감동을 주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학교 경영을 하겠습니다.

포천은 2019년부터 포천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포천 미래교육의 비전 아래 단위학교들의 학교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학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교육 활동에서 탈피하여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장이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위해서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쉽지 않음 알고 있기에 엄하고 업무지향적인 학교 경영자가 되기 보다는 인간중심형의 학교 경영을 통해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위한 것이라면 과감한 권한 위임을 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학생과 학교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겼을 때는 교장이 책임지고 교직원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망설이지 않도록 하여 모든 열정을 학생들에게 쏟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직원들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관심과 격려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동료애를 느끼게 하는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 □ 맺음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학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의 요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통해 책임감 있는 학교 경영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10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100년 후를 대비한 교육은 필요가 없어진 듯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에서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기다림이 있을 때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년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때마다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학창 시절의 공통점은 많이 흔들렸고 아파했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줬던 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수업을 통해 직접 가르치지 않지만 일동중학교 교문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맞이하며 웃음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교생의 이름을 외우고 불러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일동중학교에서의 하루하루를 소중함과 감사함으로 보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4년간의 시간으로 부족하다면, 저의 남은 교직생활을 일동중학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